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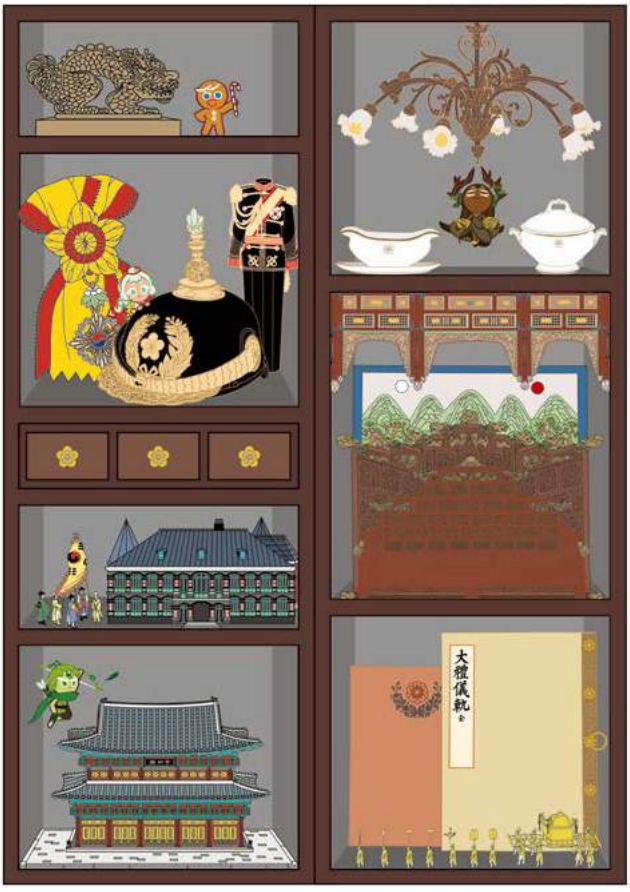
DEVSISTERS

2025년 국가유산의 날 기념 특별전시
Special Exhibition in Commemoration of National Heritage Day in 2025

쿠키런: 사라진 국가유산을 찾아서
CookieRun: In Search of Korea's Lost Heritage

2025. 12. 9. 화 TUE ___ 2026. 3. 1. 일 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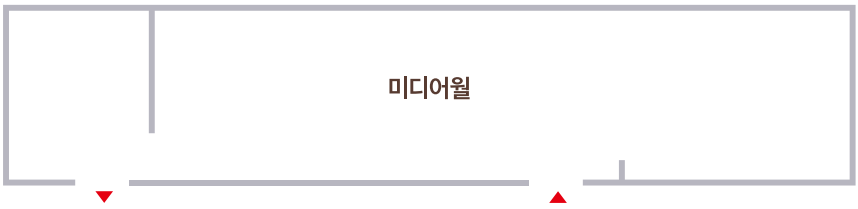
전시 개요

국가유산은 오랜 시간 우리 문화와 자연 속에 뿌리내린 정체성과 독창성, 아름다움을 간직해 온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국가유산의 날'은 국가유산이 가진 인류 보편적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의 보호 의식을 높이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한 역사가 깃든 덕수궁은 전통과 근대, 그리고 현대를 잇는 교량의 역할을 하는 국가유산입니다. 도심 한복판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동시에 무력했던 근대기의 아픔을 고스란히 품은 유산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덕수궁에서 있었던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부국강병의 꿈을 향해 나아갔던 대한제국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용감한 쿠키와 친구들의 유쾌한 여정을 통해 황실 유물의 본질적 기능과 유산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합니다. 사라진 유산을 찾아가는 모험은 곧 우리 역사의 뿌리와 근원을 탐색하는 여정이자, 함께 국가유산을 지키고 즐기며 미래로 이어가야 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국가유산은 같은 자리에 있지만 그 안에 담기는 사람과 이야기는 세월 속에서 늘 새롭게 태어납니다. 대한제국이 꿈꾸었던 부국의 성취를 이루어 낸 오늘날 우리는 덕수궁의 과거를 품고 국가유산의 수호자로서 보고 즐기며 우리의 일상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에 가려졌던 국가유산의 본질적 가치를 유쾌하게 되살리고자 마련된 이번 전시가, 우리의 과거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이곳에서 피어날 즐겁고 희망찬 이야기들을 더해 미래 세대에게 긍정적인 유산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시실 도면

1F



2F



1부
대한제국의 서막: 황제의 꿈이 깃든 순간

2부
황제의 꿈이 담긴 황궁, 덕수궁

3부
황제국의 근대 외교 의례 정비

4부
근대화된 대한제국

5부
다시 돌아온 대한국새

1부

대한제국의 서막: 황제의 꿈이 깃든 순간

The Dawn of the Korean Empire: The Emperor's Dream Begins

을미사변乙未事變 이후 러시아공사관에 머무르던 시기부터 고종高宗[1852-1919, 재위 1863-1907]은 당시의 복잡한 국제 정세와 열강들의 압력 속에서 자주독립한 근대국가로의 전환을 준비하였다. 먼저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덕수궁德壽宮을 새로운 궁궐로 선택하고, 황궁皇宮으로 정비하며 황제국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황제국에서만 사용하는 연호年號를 사용하여 중국과 동등한 위치의 자주독립국임을 선포하였다. 이어 덕수궁의 동남편에 환구단圜丘壇을 설치하였고, 이곳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 다음 황제皇帝로 즉위하였다. 환구단은 하늘의 아들인 천자天子[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자 전통적으로 황제의 지위를 상징하는 곳이었다.

제후국 조선은 1897년 8월에 연호를 '광무光武'로, 같은 해 10월에는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정하고, 황제국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선포하였다. 황제 즉위식의 화려한 의장과 의례, 특히 황금 장식으로 꾸민 행렬과 황제의 예복禮服 및 어보御寶의 형태 변화 등은 조선이 중화中華의 질서에서 벗어나 국제 사회 속에서 자주독립한 황제국임을 세계에 선포하는 상징적인 의식이었다.



대례의궤 大禮儀軌
The Royal Protocol for Great Ceremonies
1897년 | 종이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보물

1897년(광무 1) 대한제국의 선포와 관련된 여러 행사와 작업들을 기록한 책이다. 황제 즉위식과 황후, 황태자 책봉, 그리고 각종 의장물과 어책, 어보 제작 등에 관한 기록이 있으며, 채색 반차도班次圖와 도설圖說이 실려 있다. 반차도에는 황제의 가마와 행렬의 주변을 장엄하는 깃발이 황제를 상징하는 황색黃色으로 표현되었다. 이 책은 황제를 위한 어람용御覽用 의궤로 황제국의 격식에 맞추어 황색 비단으로 표지를 꾸며 제본하였다.



경운궁 현판 慶運宮 懸板
Plaque of Gyeongungung Palace (Deoksugung Palace's Old Name)
1905년 | 나무 | 국립고궁박물관

황제 즉위식 이후 대한제국을 선포한 장소이자, 황궁 정비 초기의 임시 정전인 덕수궁 즉조당卽阼堂에 걸려 있던 경운궁 현판이다. 경운궁은 덕수궁의 원래 이름으로 '경사스러운 운수가 가득한 궁'이라는 뜻이다. 이 현판은 고종이 직접 쓴 글씨로 만든 어필御筆 현판으로 1905년(광무 9)에 제작되었다. 위계가 높은 전각에 거는 사변형 현판의 형태로 사변을 두른 테두리 끝에 조각된 봉이 있으며, 흑색 바탕에 금박을 붙여 완성한 금색 글자로 만들었다.

2부

황제의 꿈이 담긴 황궁, 덕수궁

Deoksugung: The Imperial Palace Where the Emperor's Dream Lived

덕수궁德壽宮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선택한 새로운 황궁으로, 국난을 극복한 역사적 상징성과 서구 열강의 공사관이 모여 있던 국제 외교 중심지라는 조건을 함께 갖춘 장소였다. 환궁 이후 고종은 황궁의 중심 전각인 중화전中和殿(전통 황제권의 상징)을 중층으로 중건하고, 원수부元帥府(근대 황제권의 상징)를 설치하며, 서양 사절을 맞이하는 돈덕전惇德殿(근대 외교의 장)을 비롯해 석조전石造殿 · 중명전重明殿 등 서양식 건축을 적극 도입하여 근대 황제국의 체제를 구축하였다. 1904년 대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고종은 중건을 멈추지 않고 황궁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했으며,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덕수궁의 전각들은 대한제국이 지향한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정신을 공간 속에 담아 냈다. 이곳은 자주독립한 근대 황제국을 이루고자 했던 대한제국의 꿈과 의지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황궁이었다.



중화전 용상
Royal throne in Junghwajeon Hall
1905년 이후 | 나무, 금속

덕수궁 중화전에 놓였던 대한제국 황제의 어좌御座로, 1906년 영건도감에서 제작된 용상이다. 64개의 조각을 정교하게 결합해 만든 구조로, 여섯 개의 용머리[용두龍頭] 장식과 당초문 · 모란 · 초엽 등 화려한 조각 장식이 황제의 절대적 권위를 드러낸다. 용상은 중화전 당가唐家[닫집]의 중앙에 자리하며, 곡병曲屛과 함께 하나의 상징 체계를 이룬다. 아홉 개의 용머리 장식과 용 · 모란 · 파도 문양을 새긴 곡병은 황제를 중심으로 한 우주의 질서와 왕권의 번영을 상징한다. 뒤편의 일월오봉도 병풍日月五峯圖 屛風은 천자의 위상을 나타내는 전통적 배치로, 용상 · 곡병과 함께 중화전 내부의 장엄한 위계를 완성한다.

대원수 예복 大元帥 禮服
Emperor's Ceremonial Military Uniform
2018년 | 모직 | 재현품



대한제국의 최고 군 통수권자인 대원수大元帥, 즉 황제가 가장 격식 있는 공식 자리에서 착용했던 서양식의 제복이다. 원형 유물과 규정이 남아 있지 않아, 대원수 예복을 입고 촬영한 고종의 사진을 바탕으로 재현하였다. 상의는 늑골복肋骨服[근골복筋骨服] 형태로 어깨에는 관등을 나타내는 장식과 소매에는 대원수를 상징하는 11줄의 인人자형 수장을 달았으며, 대한제국의 상징 문양을 활용한 매듭단추를 금줄로 꾸몄다.



대원수 예복용 투구 大元帥禮服用 鬪具
Helmet worn as part of the ceremonial attire of the commander-in-chief
2018년 | 가죽, 금속, 옥 | 재현품

대원수 예복과 함께 착용하는 투구형 모자로, 기본 형태는 독일의 피켈하우베 Pickelhaube를 따르고 그 위에 대한제국의 상징 문양을 더해 제작되었다. 정면에는 오얏꽃 문양을, 정수리 꼭대기에는 전통 갑옷의 투구 장식인 옥봉玉鳳[새모양 장식]을 부착하였다. 원형 유물이 남아 있지 않아, 고종의 사진과 기념장 등의 기념물 도안을 바탕으로 재현하였다.

3부

황제국의 근대 외교 의례 정비

The Organization of Modern Diplomatic Formalities for an Imperial Nation

대한제국은 전통 의례를 황제국의 체제에 맞게 격상시키고, 『대한예전大韓禮典』을 편찬해 각종 의례 절차를 황제의 위상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전통적 황제국의 권위를 확립하고자 했다. 동시에 근대 서양식 외교 의례와 훈장제를 도입해 국가 의례 체계를 근대적으로 정착시켰으며, 태극 · 오얏꽃 · 무궁화 문양을 반영한 훈장제도勳章制度는 황제권과 국가 정통성을 근대 외교의 언어로 표현한 상징적 수단이었다.

이러한 준비는 1902년 고종 즉위 40주년과 망육순望六旬을 기념한 해에 절정에 이르렀다. 대한제국은 『예식장정禮式章程』을 간행해 외국 사절 접견에서 연회 절차까지 근대 외교 의례를 체계화하고, 어진 제작 · 진연 · 기념장 · 기념우표 제작 등을 통해 자주독립한 근대 황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선명히 보여주고자 했다.



대한예전 大韓禮典
Code of Rites of the Korean Empire
1898년 | 종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대한제국 선포 이후 황제국의 위상에 맞는 국가 전례를 마련하기 위해 편찬된 의례서이다. 조선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바탕으로 하되, 명나라의 『대명집례大明集禮』·『대명회전大明會典』을 참고해 황제국의 독자적 예법을 정비하였다. 여기에 서양식 근대 의례 요소를 일부 도입해 외교 의례에도 반영함으로써 전통과 동양 황제국의 예법, 서양 근대 제도를 아우른 대한제국의 구본신참舊本新參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구한국훈장도 舊韓國勳章圖
Chart of the Orders and Decorations of the Korean Empire
1910년(추정) | 종이 | 국립중앙도서관

대한제국의 훈장과 기념장을 원형原型과 원색原色 그대로 모사해 수록한 책으로, 약 30종의 훈장이 포함된다. 1900년 제정된 근대식 훈장 제도를 바탕으로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 · 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 · 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 · 태극장太極章 · 팔괘장八卦章 등 공훈에 따른 서열 체계를 갖추었다. 훈장은 오얏꽃, 태극, 매 등 대한제국의 상징 요소로 구성되며, 대한제국은 이를 외국 군주에게도 수여해 자주적 근대 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4부

근대화된 대한제국

A Modernized Korean Empire

대한제국은 자주적 근대국가를 지향하며 서양식 문물과 외교 의례를 황궁 안으로 적극 도입하였다. 근대적 외교 관례를 갖추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덕수궁의 서양식 건물에는 의례 공간과 어울리는 화려한 샹들리에를 달고 국가 상징물인 이화문을 장식해 주권 국가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세계와 소통하는 창구로서 크고 작은 서양식 연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화문을 넣어 주문 제작한 프랑스 필뤼비트Pillivuyt의 식기세트를 사용하여 품격을 갖추고자 하였다. 근대 외교에서 각국 군주가 서로의 사진을 선물로 주는 관례에 따라 제작된 고종의 어사진은 황룡포와 근대식 훈장을 함께 갖춘 모습으로 전통적 황제권과 근대 군주상이 결합된 상징적 외교 선물이었다. 근대화는 궁궐을 넘어 도시로 확산되었다. 1899년 동아시아 수도 가운데 가장 먼저 서울에 전차가 도입되었고 전차 · 전등 · 전화 등 근대 기반 시설이 빠르게 퍼져 나갔다. 궁궐과 거리 곳곳에서 빠르게 퍼져나간 근대 문물의 확산은 대한제국이 세계 속에서 지향했던 이상을 상징하였다.

대한제국 양식기 세트 大韓帝國 洋食器
Porcelain Dinner Set

20세기 초 | 자기, 유리, 금속 | 국립고궁박물관

프랑스 필리뷔트Pillivuyt사가 제작한 대한제국 황실의 서양식 만찬용 식기 세트로, 튜린(탕즙기)과 다양한 형태의 접시들로 구성된다. 가장자리와 굽에 금테를 두르고, 대한제국의 상징인 오얏꽃[이화문李花紋] 문양을 정교하게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서양식 연회를 도입하던 시기, 황실은 이러한 국가 상징이 담긴 식기를 사용해 자주적 근대 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화문 유리 등갓 李花紋燈笠
Lamp Shade with Plum Blossom Design

20세기 초 | 유리

대한제국 황실에서 사용한 화형花形과 타원형楕圓形의 유리 등갓으로, 표면에 대한제국의 상징인 오얏꽃 문양[이화문]을 정교하게 새긴 장식적 요소가 돋보인다. 서양식 전등이 도입되던 시기, 황실은 근대 기술에 전통 황실 문양을 결합한 등갓을 사용하여 조명기구에서도 황제국의 권위와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5부

다시 돌아온 대한국새

The Returned National Seal of the Korean Empire

대한국새大韓國璽는 1897년 대한제국 선포와 함께 제작된 황제국의 대표 국새로, 외교 문서 · 조약 비준서 · 훈장 증서 등 국가 최고 권한이 담긴 문서에 사용하였다. 인면에는 전서체로 '大韓國璽'라고 새겨졌으며, 손잡이는 조선의 귀뉴龜紐[거북이모양 손잡이] 대신 다섯 발톱의 용으로 조각되어 황제국의 위상을 명확히 드러냈다. 같은 시기에 제작된 다른 새보璽寶[도장]들과 비교해도 위계가 가장 높았고, 대한제국의 국권과 정체성을 담아낸 대표적인 상징이었다.

그러나 대한국새는 1911년 일제에 의해 반출되었다가 1946년 해방 후 반환되었으며, 한국전쟁 중 다시 행방이 묘연해져 실물이 남아있지 않다. 그럼에도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와 『대례의궤大禮儀軌』 등의 기록에 도설과 제작 규정이 상세히 전해져 오늘날 국가무형유산 장인의 손으로 복원될 수 있었다. 실체는 사라졌지만 기록과 기술을 통해 되살아난 대한국새는, 대한제국이 지향한 자주적 근대국가의 이상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상징물로 남아 있다.





보인부신총수 寶印符信總數
Boinbusinchongsu
(Complete Register of Royal Seals and Credentials)

1902년 이후 | 종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902년 이후 조선 · 대한제국 시기의 국새와 황실 가족의 보인寶印 · 부신符信을 정리한 책이다. 대한제국 수립 후 국격의 격상에 따라 새로 제작된 대한국새大韓國璽, 황제지새皇帝之璽, 황제지보皇帝之寶, 제고지보制誥之寶, 칙명지보勅命之寶 등이 추가되었으며, 각 인장의 도설圖說과 크기 · 중량 · 재질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조선과 대한제국의 인장 체계 변화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대한국새 大韓國璽
Daehan Guksae: Official Seal
of the Korean Empire

2025년 | 금속 |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 김영희



1897년 황제국 선포와 함께 제작되어 외교 문서, 조약 비준서, 훈장 증서 등 국가 최고 권한 문서에 사용되었던 대한국새는 한국전쟁 이후 실물이 소실되었다.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와 『대례의궤大禮儀軌』 등에 남은 도설과 제작 규정을 바탕으로 전통 기술을 활용해 원형의 비례 · 서체 · 용 모양 손잡이[용뉴龍鈕] 형식을 재현하였다.

미디어아트

정이품송, 시간을 품다

자연유산은 한반도의 동식물과 지질,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자연과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 중 보존 가치가 인정된 대상을 말한다. 2025년 올해의 자연유산 중 하나로 선정된 충북 보은 속리 정이품송은 수령 약 600년, 높이 17m, 가슴높이 둘레 4.9m에 이르는 장대한 소나무로, 생물학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1464년 세조의 가마가 나무 아래를 지나자 가지가 스스로 들어 길을 터주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며, 세조가 '정이품' 벼슬을 내린 데서 정이품송이라는 이름이 비롯되었다. 여러 재해를 겪었지만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상징적 존재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작품



선자 扇子
Seonja, Fan Making

2025년 | 국가무형유산 선자장 보유자 김동식
쿠키런 무형유산 아트 콜라보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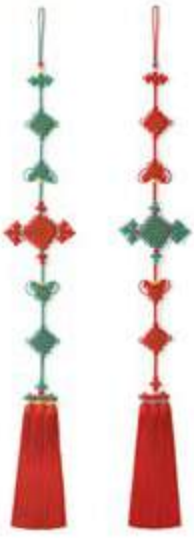
선자장扇子匠은 전통 부채를 만드는 기술을 지닌 장인을 지칭한다. 본 작품은 국가무형유산 김동식 선자장과 쿠키런이 협업하여 제작한 접부채의 한 종류인 합죽선合竹扇으로, 현재까지 전승되는 최고 수준의 정교함과 세련미를 갖춘 부채이다. 선지에는 '바람궁수 쿠키'를 표현, 2부 6방의 합죽선 작업 공정을 통해 완성하였다.

윤도 輪圖
Yundo, Geomantic Compass Making

2025년 | 국가무형유산 윤도장 보유자 김희수
쿠키런 무형유산 아트 콜라보 작품



윤도장輪圖匠은 24방위를 원으로 그려 넣은 윤도를 제작하는 기술을 지닌 장인을 지칭한다. 본 작품은 국가무형유산 김희수 윤도장과 쿠키런이 협업하여 제작한 9층 윤도로, 동서남북의 방위, 풍수, 지리, 천문 등이 담겨 있다. 윤도의 상판에는 '천년나무 쿠키'를 양각으로 표현, 정간定間 · 각자刻字 · 색입히기 · 자침磁針만들기 등의 공정을 통해 제작하였다.



매듭
Maedeup, Decorative Knotting

2025년 | 국가무형유산 매듭장 보유자 김혜순
쿠키런 무형유산 아트 콜라보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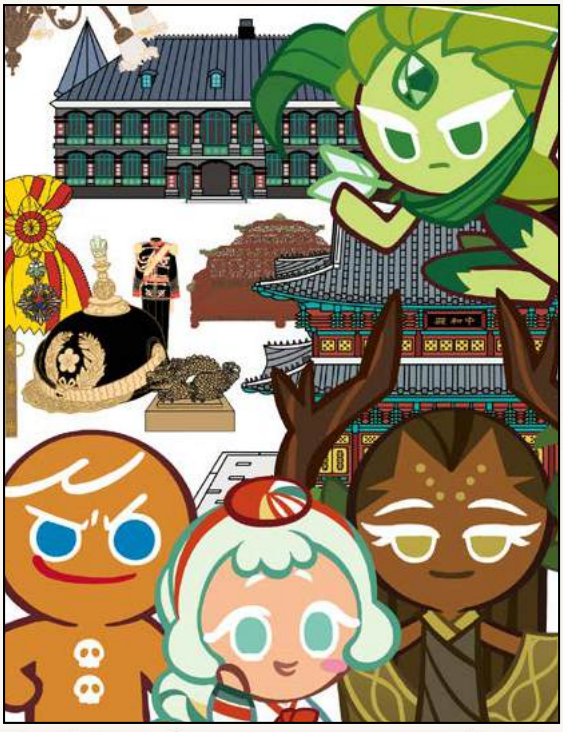
매듭장매듭匠은 끈목을 일정한 방향으로 엮고 묶어 장식적인 구조를 만드는 전통 기술을 지닌 장인을 지칭한다. 본 작품은 국가무형유산 김혜순 매듭장과 쿠키런이 협업하여 제작한 유소와 매듭으로, 한국 전통 매듭의 특징인 좌우 대칭의 구조적 균형미를 가진다. '옥춘맛 쿠키'의 대표 색감으로 명주실을 염색하여 유소를 제작, 대한제국 대원수예복의 매듭 형태를 재현한 매듭 오브제로 구성하였다.



악기 樂器
Akgi, Musical Instrument Making

2025년 | 국가무형유산 악기장 보유자 김현곤
쿠키런 무형유산 아트 콜라보 작품

악기장樂器匠이란 전통음악에 쓰이는 악기를 만드는 기술을 지닌 장인을 지칭한다. 본 작품은 국가무형유산 김현곤 악기장과 쿠키런이 협업하여 제작한 타악기 편경으로, 편경석 한쪽 면에는 '용감한 쿠키'를 표현, 음은 편경의 12율 4청성의 구성에서 가장 기본음인 황종의 한 옥타브 높은 청황종 음으로 제작하였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

쿠키런: 사라진 국가유산을 찾아서
CookieRun: In Search of Korea's Lost Heritage DEVSISTERS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